

<https://ainova.news>

AI NOVA 사용설명서

뉴스룸 AI 도구 20종



기사는 당신이 씁니다.
도구는 반복 작업을 줄이고, 확인할 지점을 표시합니다.

서울경제신문 · AI LINK · <https://ainova.news> · 2026. 7. 27 (ver.16)

powered by 

목차

처음이면 1~3장을 먼저, 막히면 5장 길찾기, 도구는 6장에서 필요한 쪽만 펴 보세요.

1	서비스 소개 — 무엇이고, 왜 이렇게 만들었나	3
2	시작하기 — 작업 원칙 · 상황별 도구 찾기	5
3	이용 안내 — 모델 선택 · 요금 · 변경 고지	6
4	버튼 하나 뒤 — 대충 쓰지 않습니다	9
5	길찾기 — 지금 막힌 곳에서 도구로	10

6 도구 20종 14~33쪽

@01	온라인 제목	14	@11	일보 작성	24
@02	창의 제목	15	@12	기사 작성	25
@03	경제 교열	16	@13	지면 제목	26
@04	사회 교열	17	@14	시각 기획	27
@05	공공 보도	18	@15	맞춤 지시	28
@06	기업 보도	19	@16	기사 진단	29
@07	영어 외신	20	@17	별점 체크	30
@08	일어 외신	21	@18	손배 체크	31
@09	장문 퇴고	22	@19	이미지 생성	32
@10	단문 퇴고	23	@20	자유 대화	33

7 결정은 기자가 합니다. 확인 안 된 것은 표시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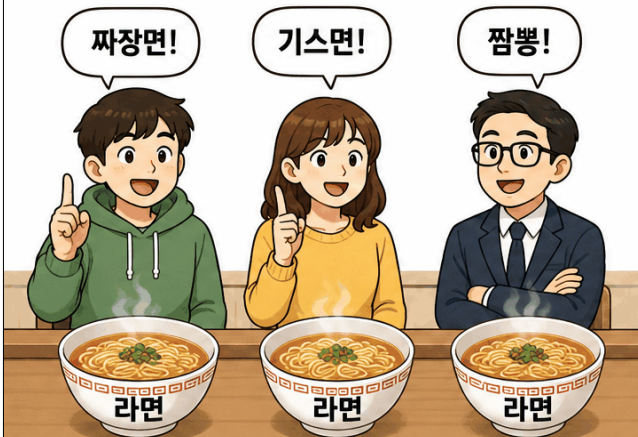
· 무엇이 필요한가 – 20종 도구 길찾기

1 서비스 소개 ① — 왜 20 종류로 나뉘었나

뭘 시켜도 라면만 나온다면?

맞춤형 AI가 필요한 이유 — 중국집 비유

❌ 주문을 구분하지 못하면



주문을 구분하지 못한다 — 뭘 시켜도 라면 하나

✅ 주문을 아는 주방장 — ainova.news



주문과 입맛까지 맞춘다 — 메뉴를 아는 주방장

AI NOVA가 20종으로 나뉜 이유 — 주문(상황)이 다르면 도구도 다르다

ainova.news

누르면 나온다 — 기사를 위한 자판기



눈높이

직관적으로 안 보이면 안 쓴다

기자의 눈높이가 합격선



선택

늘 마감에 쫓긴다

고르는 데 3초

ainova.news



간단

리모컨처럼, 자판기처럼

붙여넣고 엔터



결과

손에 결과가 쥐어져야 한다

비용보다 결과

복잡하면 기자는 안 쓴다 — 그래서 자판기처럼 만들었다

ainova.news

② — 무엇이 들어 있나

왜 우리였을까 — 답은 도메인 날리지

뉴스룸 밖에서 설계된 AI

일보 · 데스크 · 마감 · 지면

이 결을 모른 채 설계



기자의 손에 붙지 않는다

뉴스룸 25년의 결 — ainova.news 20종

제목은 세 가지 일

온라인 · 지면 · 창외

지면 세트: 어깨 15자 · 본 20자 · 부 25자

원고 손보기는 세 갈래

틀렸나 → 교열 · 약한가 → 진단 · 다듬을까 → 퇴고

송치/기소 · 구형/선고를 가려 쓴다

출고 전 마지막 점검

포털 벌점 → 손해배상 위험

발행 결정은 기자

기자의, 기자에 의한, 기자를 위한 서비스

서울경제신문 · AI LINK

⑨ 같은 재료, 다른 음식



같은 재료 시장



그냥 끓인 것

재료가 같으면 결과도 같은가



육수 — 지시문 1만 자

뉴스룸 기준 25년

도구 20종

남는 것은 조리법이다

엔진을 사도 음식은 나오지 않는다

2 시작하기 — AI NOVA 작업 원칙

판단은 기자에게, 반복 작업과 확인 누락은 도구가 줄인다.

- 1. 도구는 제안까지만 한다. 채택·수정·송고는 기자가 정한다.
- 2. 출처에 없는 내용은 쓰지 않는다. 확인 못 한 값은 [확인 필요]로 남긴다.
- 3. 각 장의 '입력' 자료를 해당 도구 채팅창에 붙여넣으면 시작한다.

도구마다 모델 단계(프로·울트라·인피니티) 선택 가능 — 자세한 안내는 6~8쪽 '이용 안내'.

어떤 상황에 어떤 도구를 쓰나

상황	도구	쪽	이 도구들의 태도
제목	01 온라인 제목 · 02 창의 제목 · 13 지면 제목	14 · 15 · 26	낚시와 매몰 사이, 수위는 당신이 고른다
교열	03 경제 교열 · 04 사회 교열	16 · 17	오류만 잡고, 당신 문장은 그대로 둔다
기사화	05 공공 보도 · 06 기업 보도	18 · 19	보도자료를 받아쓰지 않게, 계획은 계획으로
외신	07 영어 외신 · 08 일어 외신	20 · 21	옮기며 사실이 세지지 않게
퇴고	09 장문 퇴고 · 10 단문 퇴고	22 · 23	다시 써주지 않고, 약한 곳만 짚는다
작성	11 일보 작성 · 12 기사 작성	24 · 25	빈칸은 지어내지 않고 [확인 필요]로
시각화	14 시각 기획 · 19 이미지 생성	27 · 32	본문에 없는 수치는 그리지 않는다
리스크	17 별점 체크 · 18 손배 체크	30 · 31	송고 버튼을 누르기 전, 마지막 점검
개인화	15 맞춤 지시	28	취향은 새기고, 오보 방지 장치는 지킨다
진단	16 기사 진단	29	어디가 왜 약한지, 최대 세 곳만
범용	20 자유 대화	33	어디에 물어야 할지 모를 때

도구 번호(@01~@20)는 각 장 제목과 같습니다. 필요한 장만 펴 보면 됩니다.

5

거른다

'써봤는데, 틀리던데요'

없는 인용, 남의 문장, 빠진 목소리



사실



없는 인용



틀린 숫자



문장



기존 기사와 겹침



출처 없는 인용



시각



빠진 목소리



반대편 논거

AI는 평균에 기대고, 기자는 빠진 쪽을 본다

2026.7 기준

서울경제신문 · AI LINK

AI는 완벽하지 않다 — 그래서 기자다

AI가 못 하는 일

속도로도 메울 수 없는 자리

지금 못 하는 것

기술의 한계



사실과 그럴듯함의 구분



어제오늘의 최신 맥락



관점의 균형

빠르게 나아지는 영역

끝내 못 하는 것

구조의 한계



미공개 사실의 확인



보도에 대한 책임



무엇이 뉴스인가의 판단



독자의 신뢰

기자에게 남는 영역

2026.7 기준

서울경제신문 · AI LINK

기술의 한계는 줄어든다 — 구조의 한계는 기자의 자리다

3 이용 안내 ① — 모델 선택

도구마다 단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단계 이름이 모델 이름이 아닌 이유 — 여러분이 만나는 동작은 파운데이션 모델의 원본이 아니라, 그 위에 서울경제신문의 지시문과 지식이 더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단계	무엇인가	이럴 때	알아둘 것
프로	소넷 5 + 서울경제 지시문	일상 작성·초안 — 대부분 작업의 기본값	균형 잡힌 응답, 빠르고 비용이 낮다
울트라	오피스 4.8 + 서울경제 지시문	발행 전 최종 검수 — 더 깊은 점검이 필요할 때	깊은 추론, 토큰·비용이 늘어난다
인피니티	페이블 5 + 서울경제 지시문	최고난도 과제· 장기 자율 작업	가장 강력한 추론·내용에 따라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

- 위 단계일수록 토큰 사용량과 비용이 늘고 추론이 깊어집니다 — 프로 기준 울트라 약 2.5배, 인피니티 약 5배(입력 단가 기준, 2026.7 실측 기반 추정).
- 같은 도구를 5분 안에 이어서 쓰면 방금 읽은 지침을 재사용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 몰아서 연속 작업이 유리합니다.
- 인피니티는 내용에 따라 결과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파운데이션 모델 운영 정책). 거부되면 표현을 바꾸거나 다른 단계로 다시 시도하세요.

ainova.news 사용 안내

모델 선택과 이용 안내

도구마다 단계를 고를 수 있습니다

프로

소넷 5 + 서울경제 지시문

일상 작성·초안 — 대부분 작업의 기본값

균형 잡힌 응답 · 빠르고 비용이 낮다

울트라

오피스 4.8 + 서울경제 지시문

발행 전 최종 검수 — 더 깊은 점검이 필요할 때

깊은 추론 · 토큰 · 비용이 늘어난다

인피니티

페이블 5 + 서울경제 지시문

최고난도 과제 · 장기 자율 작업

가장 강력한 추론 · 내용에 따라 결과를 거부할 수 있다

무엇 위에서 돌아가나

도구 20종

↑

서울경제 도메인 날리지 — 지시문·지식

클로드 API

AWS Bedrock

예외 — @19 GPT 이미지 생성 · @20 GPT 5.6 Sol

미리 알려드립니다

1. 기반 모델은 엔트로픽 정책에 따라 변경·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2. AWS·클로드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도구의 지시문은 예고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2026.7 기준 · 비용과 절약 방법은 '기사 1건의 비용' 장 참고

무엇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 결정은 기자가 하고, 확인 안 된 것은 표시합니다

ainova.news

AI NOVA 사용설명서 · ainova.news · Powered by AWS 7

② — 요금

ainova.news 사용 안내

기사 1건의 비용 — 아껴 쓰는 법

서비스 · 단계 · 쓰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얼마나 드나

수십 원 ~ 1,000원대

기사 1건 처리 기준

읽는 지침의 두께와 고른 단계에 따라

단계가 비용을 바꿉니다

프로 — 기준 1	
울트라 — 약 2.5배	
인피니티 — 약 5배	

일상 작업은 프로로 충분합니다

이어서 쓰면 줄어듭니다



같은 도구를 5분 안에 이어서 쓰면

방금 읽은 지침을 재사용해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몰아서 연속 작업이 유리합니다

실측 기반 추정 · 2026.7 기준

인피니티는 꼭 필요한 과제에만 — 비용 기준은 정책 · 환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inova.news

■ 요금

- 기사 1건 처리에 대략 수십 원~1,000원대 — 도구가 읽는 지침의 두께와 고른 단계에 따라 차이
- 무료 사용량은 없습니다. 충전은 앱에서 금액 직접 입력(1회 1,000원~100만 원)
- 아껴 쓰는 법 — 일상 작업은 프로, 같은 도구는 5분 안에 몰아서, 인피니티는 꼭 필요한 과제만

③ — 서비스 구조·변경 고지

■ 서비스 구조

AI NOVA는 AWS Bedrock 위에서 클로드 API를 연결하고, 그 위에 서울경제신문이 만든 지시문과 지식(도메인 날리지)을 얹어 작동합니다. 예외 두 곳 — @19 이미지 생성은 GPT의 이미지 생성 모델로, @20 자유 대화는 GPT 5.6 Sol(웹검색 연동)로 구동됩니다.

■ 미리 알려드립니다

1. 단계별 기반 모델은 엔트로픽(클로드) 정책에 따라 변경되거나 업그레이드될 수 있습니다.
2. AWS와 클로드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 제공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각 도구의 지시문(프롬프트)은 품질 개선을 위해 예고 없이 업데이트될 수 있습니다 — 결과 형식이 이 설명서의 예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 결정은 기자가 하고, 확인 안 된 것은 표시합니다.

4. 버튼 하나 뒤에서 일어나는 일

기사 1건을 넣으면, 도구는 편집국이 쌓은 지침·지식 **68,583토큰** — **원고지 약 613매**를 먼저 전부 읽고 시작합니다. 내 기사 한 건(약 1,010토큰)의 약 68배 — 대충 쓰지 않습니다.

ainova.news 사용 안내

버튼 하나 뒤에서 일어나는 일

기사 1건을 넣으면, 편집국이 쌓은 지침을 먼저 통째로 읽습니다

내가 넣은 기사 1건
1,010 토큰

AI가 먼저 읽는 편집국 지침·지식

68,583 토큰

제목 규칙 · 스타일 가이드 · 금지 표현 · 유형별 기준

68배

지침 68,583 ÷ 기사 1,010 = 약 68

원고지로 약 613매 — 기사마다 이 기준을 전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서비스마다 읽는 양은 다릅니다

@09 장문·퇴고 — 약 2.5배

대부분 서비스 — 5~11배

@01 온라인·제목 — 68배

많이 읽는다고 더 좋은 결과라는 뜻은 아닙니다 —
규칙의 두께가 다를 뿐입니다

모델 단계(프로·울트라·인피니티)를
바꿔도 읽는 양은 같습니다

@01 기준 입력 토큰 실측(2026.7) · 한국어 약 1글자 ≈ 1토큰 · 원고지 환산은 근사치

대충 쓰지 않습니다 — 우리 편집 기준을 매번 전부 확인하고 시작합니다

ainova.news

ainova.news 사용 안내

사용자용

16개 서비스가 읽는 양은 이만큼 다릅니다

가장 많이 읽는 @01은 가장 적은 @10의 **15배** — 그래도 어떤 모델 등급을 골라도 읽는 양은 같습니다

총입력 토큰(지침+기사) 실측 · 배율은 최소 @10 대비 · (2026.7.12)

@01 온라인 제목	최다	...	69,593 (15.4배)
@08 일어 외신			11,629 (2.6배)
@15 맞춤 지시			10,168 (2.3배)
@07 영어 외신			10,117 (2.2배)
@04 사회 교열			10,007 (2.2배)
@05 공공 보도			8,818 (2.0배)
@03 경제 교열			8,258 (1.8배)
@06 기업 보도			8,238 (1.8배)
@12 기사 작성			7,887 (1.7배)
@09 장문·퇴고			7,212 (1.6배)
@13 지면 제목			7,203 (1.6배)
@02 창의 제목			7,114 (1.6배)
@11 일보 작성			6,568 (1.5배)
@16 기사 진단			6,251 (1.4배)
@14 시각 기획			5,622 (1.2배)
@10 단문·퇴고	최소·기준		4,509 (1.0배)

읽는 양이 많다고 결과가 더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 서비스마다 확인할 규칙의 두께가 다를 뿐입니다

모델 등급(인피니티·울트라·프로)을 바꿔도 위 토큰 수는 그대로입니다 — 72개 측정 전부 동일

토큰: AI가 글을 읽는 최소 단위 · 총입력 = 편집국 지침 + 기사 본문 · 배율 = 각 서비스 ÷ @10(4,509) · 실측 count_tokens 기준

5 길찾기 ① — 전체 지도 · 원고 3초 분기

AI NOVA 전체 지도 – 기사 공정 위의 20종

순서는 자유 - 지금 막힌 칸만 골라 쓴다



ainova.news

원고, 어디에 맡기지? — 3초 분기



틀렸나 → 교열 · 약한가 → 진단 · 다듬을까 → 퇴고

ainova.news

② — 제목 3종 · 시각화 2단계

제목 도구 3종 — 무엇이 다른가

역할이 다른 세 도구 — 상황으로 고른다



제목 3종 도구



온라인_제목 클릭

실전 출고용 — 5유형 + 추천 2안



저널리즘
충실형



균형잡힌
후킹형



클릭유도형

SEO/AEO 최적화형

소셜미디어 공유형



창의_제목 아하!

발상 7축 — 무난한 안은 실패



역발상



숨은
연결고리



시간역행



일상
메타포

독자 중심
전환

언어 혁신

충돌 생성



지면_제목 압축

어깨·본·부 세트 2~3안

어깨제목 (15자 이내)

본제목 (20자 이내)

부제목 (25자 이내)

셋 다 본문 밖 사실은 쓰지 않는다 — 채택은 기자·편집자

ainova.news

기사에서 그래픽까지 — 복사, 붙여넣기, 엔터

① 시각 기획

클로도 구동

기사 붙여넣기

구성안 2~3안 제안

유형 팔레트



표



막대



꺾은선



원그래프



타임라인



절차도



관계도



컷-일러스트

수치 있으면 데이터 → 없으면 구조 → 상징 컷

지면 단위 환산: 3단 = 100mm ≈ 787px

이미지 생성 명령어

본문은 영어

문구·수치는 한국어

명령어
작성

복사 →
붙여넣기 →
엔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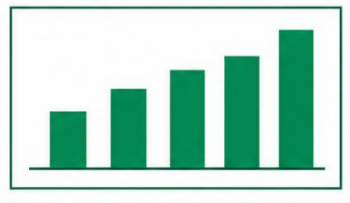
한 글자도 고치지 않는다

② 이미지 생성

GPT 구동 · gpt-image-2

명령어 그대로 렌더링
이 도구는 인쇄기

완성 그래픽



✓ 검수: 이미지 속 문구·수치 전수 대조

명령어의 수치·문구는 기사 대조를 마친 확정본 — 고치면 검증이 무너진다

ainova.news

③ — 발제에서 초안까지 · 출고 전 관문

발제에서 초안까지 — 빈칸은 지어내지 않는다

아이디어 한 줄이 데스크 보고용 일보로, 일보가 70~80% 초안으로

① 일보_작성

발제

아이디어 한 줄 · 자료 · 외신

일보 골격 — 제목 · 핵심 · 배경 · 취재
가치 판정 GO · MAYBE · STOP + 이유
같은 팩트로 각도 3안

자료: 투자액 미기재

투자액 [확인 필요: 규모, 회사 IR]

[단독] · [속보] 판정은 데스크 권한 — 도구는 유보

발제가 서면 → 본문으로

② 기사_작성

초벌

일보 · 팩트 · 보도자료

표준 기사체 초안 — 70~80% 완성도
정보 구분 — 확인 · 추론 · 미확인
제목은 요청 시 5안

자료: 투자 규모 '수천억 원대'

회사는 [확인 필요: 정확한 투자액]을 투입해

실제하는 발언만 인용 — 빈 자리는 기자가 취재로 채운다

출처에 없는 사실은 쓰지 않는다 — 빈 곳은 [확인 필요]로

ainova.news

출고 직전, 두 개의 관문

요즘 뉴스룸의 새 리스크 — 벌점과 손해

벌점_체크

길목

네이버 제휴 운영평가 사전 점검

근거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 제11조 · 18개 항목
시점	2026년 4월 시행 · 5월 정식 부과
무엇을	유사도 S1~S4 · 위반 위험 · 벌점 · 근거 조항 · 수정 권고

24개월 누적 10점 = 계약 해지 권고

한계 — 운영평가위 의결을 대신하지 않는다

손배_체크

불씨

개정 정보통신망법 법적 리스크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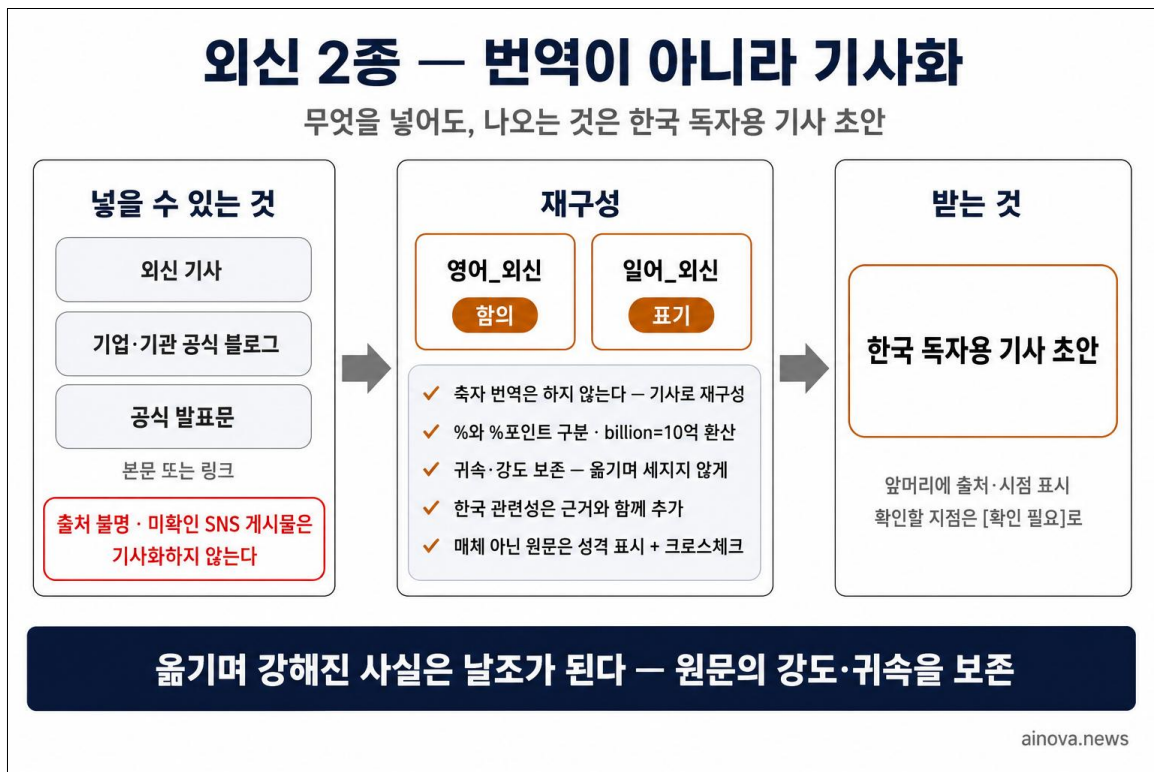
근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0 · 2026.7.7 시행
징벌 손해배상 최대 5배 · 손해액 5,000만 원 · 과징금 10억 원	
무엇을	위험도(높음 · 중간 · 낮음) · 문장별 수정안 · 징벌배상 3요건 · 면책 전망
정밀도	취재 경위(취재원 수 · 반론 · 문서 증거) 입력 시 상승

한계 — 법률 자문이 아니다 · '높음'은 데스크 · 법무 검토

판정은 참고용 — 최종 판단은 위원회 · 데스크 · 법무의 몫

ainova.news

④ — 외신은 번역이 아니라 기사화



6. 도구 20종

다음 장부터 도구 20종 레퍼런스

도구당 1쪽, @01부터 @20까지(14~33쪽). 필요한 쪽만 펴 보면 됩니다

@01 온라인 제목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기사는 다 썼는데, 제목 칸에서 커서만 깜빡인다.**

정직하게 쓰면 묻히고, 당기면 낚시 같다.

입력

기사 본문 — 질문 없이 바로 7안이 나온다

형식 예시(가상) — 수위만 다르게

가상 기사: 식품기업 A 주가 19% 급등

▼ 5유형 + 추가 2안

충실형 식품기업 A 주가 19% 급등...협업 상품 완판 영향

소셜형 상품 하나가 주가를 흔들었다...식품기업 A 19% 급등

가상 예 — 수위만 달리하고, 본문 밖 사실은 넣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만듭니다 ✓ 후킹 수위 5유형 + 추천 2안 ✓ 기본 35~45자, 짧게·길게 조절

출력

● 5유형 5안 — 수위별 각 1안

● ★ 추천 — 유형과 이유 표시

● 추가 2안 — 추천 유형 다른 앵글

● 후속 메뉴 — 1~5 번호 선택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온라인 제목
발언은 '열려 있다'뿐	X '카드도 살아있다'로 각색	✓ 따옴표 안은 실제 발언만
'한 관계자' 익명	X 실명·직함으로 승격	✓ 익명은 익명 그대로
후킹이 필요한 기사	X 충격·경악류 낚시어	✓ 신선한 표현으로 수위 조절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어느 수위로 내보낼지는 기사를 아는 기자가 정한다

· 요약·분석 등 부가 기능은 하지 않는다. 없는 말은 한 줄도 섞지 않는다.

+ **알아두면** 전두 하중 — 핵심 정보는 제목 앞 20자 안에 싣는다.

▶ **후속 명령** 재생성 / 추천 3개 / 제목 수정 / 소제목

▶ 지면 세트는 @13, 파격 발상은 @02

작업 원칙 후킹과 왜곡은 다르다 — 전 유형에서 본문 밖 사실은 쓰지 않는다

@02 창 의 제 목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제목이 안 떠올라, 늘 쓰던 각도만 맴돈다.
첫 발상에서 멈추면, 어제 쓴 그 제목이 또 나온다.

입력

기사 본문 — 즉시 7축 7안이 나온다

발상 전환의 예(가상)

가상 기사: 소비자물가 상승

▼ '독자 중심 전환' 축

당신의 점심값이 먼저 알았다

가상 예 — 고정 7축 중 하나. 발상 촉발용, 채택은 기자·편집자.

이런 것까지 시도합니다

✓ 역발상·일상 메타포 등 7축 ✓ 파격 수위에선 극단급 ★ 2안 ✓ 안마다 튀는 이유 한 줄

출력

● [파악/수위] — 기사 핵심·수위 선언

● 7안 — 축 라벨 붙여 제시

● 핵심어·이유 — 안마다 한 줄

● ★ 극단급 — 파격 수위 2안

핵심 차이

기사	피할 처리	창의 제목
암시만 한 대목	X 사실처럼 단정한 제목	✓ 제목 두고 [확인 필요]
본문 속 '충격' 표현	X 제목으로 그대로 이식	✓ 진부하면 폐기·재발상
여러 안 요청	X 같은 발상의 표현 변형	✓ 겹치지 않는 7축 7안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완성 제목의 자동 채택은 없다 — 최종 선택은 기자·편집자

· 없는 사실로 멋을 내지 않는다. 무난한 안은 이 도구의 실패다.

▶ 후속 명령 수위: 절제·파격·극단 / ○○축 3안 / n번 밀어붙여

▶ 출고용 수위 조절 제목은 @01

작업 원칙 기사에 없는 사실이 든 안은 창의성과 무관하게 탈락

@03 경제 교열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숫자 하나 잘못 나가면, 다음 날 정정보도다.

AI 교열기에 맡기면, 멀쩡한 내 문장까지 헤집어 놓는다.

입력

경제 기사 — 도구가 표기 체계를 먼저 선언

경제 기사의 대표적인 숫자 사고

기준금리 0.25% 인상

▼ [필수] 교정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상

3.00→3.25%는 %로 따지면 8.3% 인상 — 비율의 변동 폭은 %포인트.

이런 것까지 점검합니다

✓ 결제·결재, 명목·실질 혼동 ✓ 부분 합·총계 불일치 점검 ✓ 금리는 인상, 주가는 상승

출력

● [필수] — 오류·수정안과 근거

● [권고] — 분야 표준 제안

● [일관성] — 통일안만 제시

● [확인 필요] — 수치 모순·인용 오타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경제 교열
주가 3% 하락(옳음)	X '%포인트'로 과교정	✓ 수준 변동은 % — 안 고침
팔자·사자 관용어	X 오타로 보고 바꿈	✓ 보호 표현으로 보존
처음 보는 인명	X 아는 이름으로 교체	✓ 근거 없으면 [확인 필요]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결정은 기자 — 문체·논조·문장 순서는 불가침

· 기사가 택한 표기가 기준. 특정 매체 표기를 강제하지 않는다.

▶ 후속 명령 숫자·단위만 / 문장·문법만 / 전체 재교열

▶ 정치·사회 기사는 @04 사회 교열

작업 원칙 옳은 문장을 고치지 않는다 — 오타 0이 검출률 100보다 앞선다

@04 사회 교열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항소'인지 '상고'인지, 마감 앞에서 헛갈린다.

법조 용어 하나 틀리면 오보인데, 확인할 시간은 없다.

입력

정치·사회 기사 — 도구가 표기 체계를 먼저 선언

법 절차 용어 사고 — 심급 혼동

~~2심 불복해 대법원에 항소~~

▼ [필수] 교정

2심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

1심→2심은 항소, 2심→대법원은 상고. 인용문 속 오타는 [확인 필요]로만.

이런 것까지 잡아냅니다

✓ 피의자·피고인, 구형·선고 ✓ 무혐의는 검찰, 무죄는 법원 ✓ 오차범위 안 '앞섰다' 단정

출력

● [필수] — 규정 근거 있는 오류

● [권고] — 선거·여론조사 표준

● [일관성] — 통일안만 제시

● [확인 필요] — 직함·인용 속 오타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사회 교열
처음 나온 인명·직함	X 외부 지식으로 교체	✓ 근거 없으면 [확인 필요]
기자의 평가 문장	X 평가에 손대 고침	✓ 불가침 — 기자의 영역
인용문 속 '몇일'	X '며칠'로 바로 고침	✓ 발언 원문일 수 있어 표시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결정은 기자 — 평가·논조·실명 처리는 불가침

· 아는 것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름·직함을 바꾸지 않는다.

▶ 후속 명령 숫자·단위만 / 문장·문법만 / 전체 재교열

▶ 경제 기사는 @03 경제 교열

작업 원칙 인명·직함을 추측하지 않는다 — 그 실패는 오탈자가 아니라 오보다

@05 공공 보도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보도자료를 그대로 옮겼다가, '계획'이 '사실'이 돼버린다.
빨리 기사화해야 하는데, 받아쓰면 홍보문이 된다.

입력

정부·공공기관 보도자료 — 발표와 사실을 분리해 초안으로

기관 발표의 대표 사고 — 기정사실화

근거 법령 미통과 내년부터 지원한다

▼ 계획 어미로

내년부터 지원할 방침이다

확정 어미는 원문에 확정 절차가 명시됐을 때만 쓴다.

이런 것까지 표면화합니다

✓ 홍보 수사는 인용으로 이동 ✓ 원문 밖 문장은 전부 [대괄호] ✓ 재원 모순은 '검증 필요'로

출력

● [파악] — 유형·표기 선언

● 기사 초안 — 원문보다 짧게

● 네 박스 — 주장·검증·PR·목소리

● 제목 5안 — 방향 서로 다르게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공공 보도
MOU 체결 발표	X 확정 사업처럼 씀	✓ 협약 성격을 유지
'역대 최대' 자평	X 지문에 사실처럼 옮김	✓ 기관에 귀속시켜 씀
목소리 없는 발표	X 코멘트를 지어냄	✓ 주체 지목·질문까지만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 결정은 기자 — 진위 판정·검색 취재·논조 부여는 안 한다
- 빠진 목소리도 주체 지목과 질문까지 — 입장을 대신 쓰지 않는다.
- ▶ 후속 명령 분량·초점 조절 / 다른 각도 / 제목 추가
- ▶ 기업 보도자료는 @06 기업 보도

작업 원칙 원문 밖 사실은 쓰지 않고, 계획은 계획의 어미로 남긴다

@06 기업 보도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업계 최초'라는데, 확인 못 하면 내 기사가 광고가 된다.
PR 문구를 지문에 넣으면 회사 홍보를 대신하는 꼴이 된다.

입력

기업 보도자료 — 사실·주장·원문 밖을 분류해 초안으로

보도자료 기사화의 대표 실패

보도자료 문구 업계 최초 · 최고 수준

▼ 회사에 귀속

회사는 '업계 최초'라고 밝혔다

틀린 게 아니라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 — 주장은 회사에 돌려준다.

이런 것까지 가려냅니다

✓ 원문 밖 배경·해석은 [대괄호] ✓ '관계자' 발언 승격 안 함 ✓ 인용문 속 오타도 알리기만

출력

● [파악] — 유형·표기 선언

● 기사 초안 — 밖은 [대괄호] 표시

● 세 박스 — 사실·검증·추가 취재

● 제목 5안 — 진부 표현 회피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기업 보도
'업계 최초' 자평	X 지문의 사실로 씀	✓ 회사의 주장으로 이동
인수 목적 미기재	X 목적을 지어냄	✓ '추가 취재'로 남김
정보 적은 짧은 자료	X 배경을 채워 늘림	✓ 원문이 짧으면 기사도 짧게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분량·초점·제목은 기자가 정한다 — 진위 판정은 안 한다

· 없는 인용을 만들지 않는다. 빈 곳은 '추가 취재'로 남긴다.

▶ 후속 명령 분량·초점 조절 / 다른 각도 / 제목 추가

▶ 정부·기관 자료는 @05 공공 보도

작업 원칙 원문 밖 사실은 쓰지 않고, 빈 곳은 '추가 취재'로 남긴다

@07 영어 외신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외신이 났다. 빨리 옮겨야 하는데, 옮기다 사실이 세진다.**
급하게 옮기면 %와 %포인트도, 귀속도 날아간다.

입력

영문 원문·링크 — 번역이 아니라 기사화 — 한국 독자용 재구성

형식 예시(가상)

원문·메타데이터 [원매체] | 4일 보도

The central bank raised its benchmark rate by a quarter point.

▼ 한국 독자용

4일(현지시간) [원매체]에 따르면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매체·보도일·주체는 제공된 원문과 메타데이터에서만 옮긴다.

이런 것까지 구분해 옮깁니다 ✓ %와 %포인트 구분 ✓ billion=10억 환산, 환율 병기

출력

● [파악] — 매체·보도일·유형

● (가제) — 식별용 한 줄

● 본문 — 앞머리에 출처·시점

● [확인 필요] — 확인 방법과 함께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영어 외신
'가능성'만 언급	X '인하한다'로 확정	✓ 가능성 수준 유지
소식통 귀속 문장	X 표지 지우고 사실로	✓ 귀속 그대로 유지
한국 언급 없음	X 영향을 지어내 연결	✓ 근거 없으면 연결 안 함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송고 판단은 기자 — 전문 측자 번역·제목 다안은 안 한다

· 원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알아두면** 출처 불명 SNS 게시물은 기사화하지 않는다

▶ **후속 명령** 단신 / 3줄 요약 / 풀어줘 / ○○ 관점

▶ 완성 원고 교열은 @03·@04에서

작업 원칙 옮기며 강해진 사실은 날조가 된다 — 원문의 강도·귀속을 보존

@08 일어 외신 작성 전·작성 중

이럴 때 사용 **경어와 완곡 어투를 그대로 옮기면, 기사가 되지 않는다.**
빨리 옮기려다 귀속을 지우면, 추측이 사실이 된다.

입력

일본어 원문·링크 — 번역이 아니라 기사화 — 한국 독자용 재구성

형식 예시(가상)

원문·메타데이터 [원매체] | 4일 보도

日本銀行は政策金利を0.25ポイント引き上げた。

▼ 한국 독자용

4일 [원매체]에 따르면 일본은행은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한일은 시차가 없어 '(현지시간)'을 안 붙인다. 매체명은 메타데이터에서만.

이런 것까지 구분해 옮깁니다 ✓ 레이와 8년 → 2026년 서기 환산 ✓ '수상' 아닌 '총리'로 통일

출력

● [파악] — 매체·보도일·유형

● (가제) — 식별용 한 줄

● 본문 — 앞머리에 출처·시점

● [확인 필요] — 확인 방법과 함께

핵심 차이

원문	피할 처리	일어 외신
추측·전언 원문	X 확정 사실로 승격	✓ 강도·귀속 보존
엔화 금액	X 1엔=9원식 어림 환산	✓ 당일 환율 확인·병기
한국 언급 없음	X 한일 영향을 붙임	✓ 근거 없으면 연결 안 함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송고 판단은 기자 — 전문 축자 번역·제목 다안은 안 한다

· 원문에 없는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알아두면** 번역기가 아니라 기사화 도구 — 축자 번역 대신 한국 기사 문법으로 재구성한다.

▶ **후속 명령** 단신 / 3줄 요약 / 풀어줘 / ○○ 관점

▶ **완성 원고 교열은 @03·@04에서**

작업 원칙 귀속을 지우면 날조가 된다 — 강도와 출처를 그대로

@09 장문 퇴고 퇴고

이럴 때 사용 긴 기사를 다 썼는데, 어디부터 손봐야 할지 막막하다.
AI에 맡기면 통째로 다시 써서, 내 기사가 아니게 된다.

입력

장문 원고(1,000자 이상) — 진단과 방향 제시 후 멈춘다

재배치는 방향을 고른 뒤에만

1,000자 이상 장문 원고

▼ 진단 후 멈춤

진단과 방향 2~3개, 그리고 멈춤

재배치안은 방향을 고른 뒤에만. 새로 쓰는 연결부는 전부 [대괄호].

이런 것까지 봅니다

✓ 구조·흐름·문헌 가치 진단 ✓ 원고 안 수치 모순 표시 ✓ 새 문장은 전부 [대괄호]

출력

● [파악] — 분야·독자·구조 선언

● 진단·방향 — 서로 다른 2~3개

● 재배치 지도 — 전 문단이 한 번씩

● 변경 목록 — 새 문장은 [대괄호]

핵심 차이

원고	피할 처리	장문 퇴고
잘 짜인 원고	X 요청 없이 재구성	✓ '잘 짜였다' + 미세조정
장면으로 여는 피처	X 역피라미드로 개조	✓ 선택으로 보고 존중
'~로 보인다' 추측	X 다듬으며 지움	✓ 추측·전언 층위 보존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방향을 고르는 것도 기자 — 고른 뒤에만 재배치안

· 잘 짜인 원고에는 '잘 짜였다'고 말하고 미세조정만 제안한다.

▶ 후속 명령 이 지도대로 조립 / 구간만 다시 / 다른 방향

▶ 문장 단위 퇴고는 @10 단문 퇴고

작업 원칙 고치지 않음이 기본값이다 — 없는 문장은 짓지 않는다

@10 단문 퇴고 퇴고

이럴 때 사용 **속보 한 줄, 압축하다 보면 뜻이 슬쩍 바뀐다.**
줄이다 보면 '~로 알려졌다'가 '~했다'가 된다.

입력

단문 기사(1,000자 안팎) — 진단 후 방향, 고르면 수정안

압축이 날조가 되는 순간

소환한다

▼ 전언 보존

소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언을 단정으로 줄이면 압축이 아니라 날조다.

이런 것까지 살핍니다

✓ 모바일 승부처, 첫 두 줄 진단 ✓ 묻힌 수치·독점 정보 발굴 ✓ 잘된 문장은 '지킬 것' 확정

출력

● [파악] — 분야·독자·톤 선언

● 진단 — 지킬 것·버릴 것

● 방향 — 서로 다른 2~3개

● 수정안 — 전문+변경 목록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단문 퇴고
다듬어 달라는 원고	X 완성본부터 제시	✓ 방향 제시 후 멈춤
이을 정보가 없음	X 지어서 채움	✓ [대괄호]로 표시
기자 관용어 '매파'	X 어색하다며 평준화	✓ 기자의 의도로 보존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원고의 결정권은 기자 — 숫자·고유명사·인용은 원문 그대로

· 없는 정보로 문장을 잇지 않는다.

▶ 후속 명령 이대로 완료 / 문장만 다시 / 다른 방향

▶ 긴 원고의 구조는 @09 장문 퇴고

작업 원칙 요청 없는 완성본은 협업이 아니라 대체다

@11 일보 작성 기획·작성

이럴 때 사용 **발제 한 줄에 숫자를 잘못 넣으면, 취재 전체가 어긋난다.**
빨리 발제해야 하는데, 빈 곳을 채우면 없는 팩트가 생긴다.

입력

아이디어·자료·외신 — 입력 유형을 판정해 일보로

수치가 비어 있는 자료를 받았을 때

자료 투자액 미기재

▼ 빈칸은 표시

투자액 [확인 필요: 규모, 회사 IR]

그럴듯한 '3,000억 원'을 지어 쓰지 않는다.

이런 것까지 발제합니다

✓ 가치 판정 GO·MAYBE·STOP ✓ 같은 팩트로 각도 3안 ✓ 외신은 출처·추가분 표시

출력

● **일보** — 제목·핵심·배경·취재

● **가치 판정** — GO·MAYBE·STOP+ 이유

● **각도 3안** — 서로 다른 방향

● **일보 평가** — 강점·약점 한 줄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일보 작성
외신 속 '검토 중'	X 확정 사실로 승격	✓ 확실성·귀속 유지
[단독] 요청	X 요청대로 부착	✓ 유보 — 데스크 권한
'업계 최고' 자평	X 제3자 평가처럼 인용	✓ 회사 설명으로 귀속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결정은 기자 — [단독]·[속보] 판정은 데스크 권한

· 가치가 낮으면 낮다고 말한다. 빈 곳은 [확인 필요]로 남긴다.

▶ **후속 명령** 짧게 / 자세히 / 문장형

▶ 본문 초안은 @12 기사 작성

작업 원칙 **없는 사실을 만들지 않는다** — 그럴듯한 값이 유일한 치명 실패다

@12 기사 작성 기획·작성

이럴 때 사용 초안은 빨리 뽑고 싶은데, 없는 숫자를 지어넣을까 두렵다.
빈칸을 채운 초안은 오보의 씨앗이다.

입력

일보·팩트·보도자료 — 표준 기사체 초안으로

자료가 '수천억 원대'라고만 할 때

자료 투자 규모 '수천억 원대'

▼ 빈칸은 표시

회사는 [확인 필요: 정확한 투자액]을 투입해

대괄호는 그대로 실리면 눈에 띈다 — 취재로 채울 자리다.

이런 것까지 지킵니다

✓ [단독]·[속보]는 요청에도 유보 ✓ 근거 없는 '보인다' 안 씀 ✓ 외신 확실성·귀속 보존

출력

● [파악] — 입력 유형→작업 선언

● 기사 초안 — 70~80% 완성도

● 정보 구분 — 확인·추론·미확인

● 제목안 — 요청 시 5안

핵심 차이

자료	피할 처리	기사 작성
비공개·미정 값	X 아는 값처럼 지어냄	✓ [확인 필요] 병기
'국내 최초' 자평	X 지문에서 단정	✓ '회사는 ~라 밝혔다'
발언 없는 자료	X 인용문을 만들어 넣음	✓ 실재하는 발언만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결정과 종결은 기자 — 종결 신호가 오면 멈춘다

· 초안의 빈 자리는 기자가 취재로 채워 완성한다

▶ 후속 명령 수정 지시 / 제목 5안 / 문체 변경

▶ 발제 단계는 @11 일보 작성

작업 원칙 출처에 없는 사실은 쓰지 않는다 — 빈 곳은 [확인 필요]로

@13 지면 제목 기획·작성

이럴 때 사용 조판 마감. 어깨·본·부, 자수까지 맞춰 세 줄을 지어야 한다.
본문 속 '사상 최대'를 옮기면 편한데, 그게 오보의 진원이다.

입력

기사 본문(+박스 기사) — 유형·지면감 판단 후 세트 제안

지면 제목 세트의 형식(가상 샘플)

기사 본문

▼ 어깨·본·부 세트

[본] 잔돈저축 300만 돌파 / [부] 예치금 5,200억...2030이 78%

가상 샘플 — 어깨 15자·본 20자·부 25자 이내, 세트마다 각도 라벨.

이런 것까지 지킵니다

✓ 어깨=맥락, 본=핵심, 부=충위 ✓ 스트레이트+박스 한 아이템 ✓ 단신은 본제목만 2~3안

출력

● [파악] — 유형·지면감·핵심

● 세트 2~3안 — 어깨·본·부+각도

● 박스 제목 — 의미·배경 축으로

● 단신 — 본제목만 2~3안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지면 제목
본문 속 '사상 최대'	X 제목으로 그대로	✓ 진부 표현 — 그 안 폐기
기대·전망 수준	X 확정처럼 씀	✓ 본문이 말한 수준까지
발언 아닌 어구	X 큰따옴표로 가상 발화	✓ 어구는 작은따옴표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세트 확정 = 편집기자 — 특정 매체 문체를 강제하지 않는다

· 본문에 없는 사실·함의를 제목에 넣지 않는다.

▶ 후속 명령 N세트 변주 / 자수 조정 / 소제목 추가

▶ 온라인 제목은 @01, 발상은 @02

작업 원칙 지면 제목에 낚시는 없다 — 제목이 본문을 넘지 않는다

@14 시각 기획 기획·작성

이럴 때 사용 그래픽으로 뽑고 싶은데, 기사엔 그릴 만한 수치가 안 보인다.
억지로 그리면, 본문에 없는 숫자가 그림으로 굳는다.

입력

기사 본문 — 규격·내용 직접 요청도 가능

그릴 재료가 없을 때

수치가 없는 기사

▼ 형식은 재료가 정한다

절차도·타임라인 등 구조 시각화 제안

없는 수치는 그리지 않는다. 결측 값은 [본문에 없음]으로 표기.

이런 것까지 챙깁니다

✓ 제안마다 형식 근거 한 줄 ✓ 결측은 [본문에 없음] 표기 ✓ 인쇄 미달 규격엔 dpi 경고

출력

● [파악] — 유형·재료·용도

● 제안 2~3안 — 형식+근거 한 줄

● 데이터 표 — 본문 수치만

● 이미지 명령어 — 요청 시 작성

핵심 차이

기사	피할 처리	시각 기획
연도 빠진 시계열	X 추세선으로 이음	✓ 결측 표시 — 빈칸도 정보
수치 없는 기사	X 무리한 그래프	✓ 절차도·타임라인 전환
파생 수치·증감률	X %·%포인트 혼동	✓ 무엇 대비인지 표시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확정된 기사 — 이미지 파일 제작은 명령어까지

· '추정해 채우라' 해도 채우지 않는다. 값을 주면 반영한다.

+ **알아두면** 지면용 규격은 단수(段)를 mm·px(200dpi 기준)로 환산해 잡는다.

▶ **후속 명령** N번 명령어 / 재추천 / 규격 지정

▶ 만든 명령어는 @19 이미지 생성에서 렌더

작업 원칙 본문에 없는 수치는 그리지 않는다 — 시각물은 오래 남는다

@15 맞춤 지시 기획·작성

이럴 때 사용 **매번 같은 취향을, 처음부터 다시 설명하는 게 지친다.**
'내 스타일대로'를 규칙으로 옮기는 게 또 일이다.

입력

취향 한 줄·원고 3~5건·지시문 — 대상 도구를 정한 뒤 재단 시작

취향 한 줄이 지시문 블록으로

'역대·사상·절대' 같은 말은 빼줘

▼ 블록화

'역대·사상·절대'는 금지어에 추가

각 도구 채팅창 맨 앞에 붙여넣으면 작동 — 도구는 안 고쳐도 된다.

세 경로로 재단합니다

✓ 말로 지정 — 규칙 그대로 블록화 ✓ 역설계 — 원고 3~5건에서 추출

출력

● **[파악]** — 경로·대상 도구

● **지시문 블록** — 자연어 10줄 이내

● **수락 케이스** — 블록 밖 2~3건

● **[미설정]** — 빈칸도 정보

핵심 차이

입력	피할 처리	맞춤 지시
'[단독] 느낌 나게'	X 지시문에 그대로 새김	✓ 어휘 취향으로만 반영
'시적으로' 형용사	X 그대로 규칙 저장	✓ 3안 시착 후 특징으로
정하지 않은 항목	X 기본값을 지어 채움	✓ [미설정]으로 남김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확정은 기자** — 규칙 변경·기사 직접 생성은 안 한다

· 날조 금지 같은 오보 방지 장치는 취향으로 끌 수 없다.

▶ **후속 명령** 빨리 / 자세히 / 내보내기형

▶ 만든 블록은 각 도구 맨 앞에 붙여넣기

작업 원칙 취향은 [기본] 항목까지 — 오보 방지 [절대] 규칙은 새기지 않는다

@16 기사 진단 출고 전

이럴 때 사용 송고 버튼 위에서 손이 멈춘다. 약한데, 어디가 약한지 모르겠다.
내 글은 내가 너무 가까워 안 보인다. 데스크는 바쁘다.

입력

완성 원고 — 사전 설문 없이 바로 진단

구조 진단의 예(테스트용 허구 원고)

원고 일부(허구) 1문단: '실적을 발표했다'

4문단: '영업이익 41.5% 급감'

▼ 진단

[한 방] 영업이익 급감이 4문단에 묻혔다

허구 예시 — '한 방'은 기사의 값을 정하는 문장. 위치와 이유만 짚는다.

이런 것까지 짚습니다

✓ 핵심이 몇 문단에 묻혔는지 ✓ 수치 없는 규모어 '대폭' ✓ 7% 하락에 '폭락' — 과잉 강도

출력

● [파악] — 장르·분야·독자 선언

● 판정 — 가장 약한 축·강점

● 우선 수정 — 최대 3건, 전후 예시

● [확인 필요] — 수치 모순 위치만

핵심 차이

원고	피할 처리	기사 진단
약점 없는 원고	X 할당 채우듯 지적	✓ 0건도 정상 산출
평가어 '빠아픈'	X 취향을 약점으로 지목	✓ 기자의 영역 — 안 건드림
점수·등급 요청	X 정밀해 보이는 점수	✓ 서술 판정만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고칠지는 기자가 정한다 — 기자의 문장은 기자의 것

· 고쳐 주지 않는다. 어디가 왜 약한지만 짚는다.

▶ 후속 명령 특정 축만 / 고친 원고 재진단 / 꼼꼼히

▶ 맞춤법·표기는 @03·@04 교열에서

작업 원칙 흠 없는 문장을 약점으로 지목하지 않는다 — 오탐 0이 앞선다

@17 벌점 체크 출고 전

이럴 때 사용 네이버 전송 버튼 앞에서, 이게 벌점감인지 확신이 안 선다.
보도자료를 살리자니 유사도가 걸리고, 다 바꾸자니 시간이 없다.

입력

기사(+보도자료·비교 기사) — 카테고리 지정 시 그 항목까지 판정

네이버 전송 전, 벌점 사전 점검 기사 + 보도자료

▼ 유사도·항목 점검

[종합 판정] 주의 — S1(동일) 3문장·제11조 위험

24개월 누적 부정 평가 10점 = 계약 해지 권고. 판정은 참고용.

이런 것까지 점검합니다

✓ S1~S4 문장 단위 유사도 ✓ 제11조 18개 중 텍스트 판정분 ✓ 해당 조항·부과 점수 명시

출력

● [종합 판정] — 안전~고위험 4단계

● [유사도 분석] — S1~S4 문장 대조표

● [항목 점검] — 위험 조항·부과 점수

● [한계 고지] — 제외 항목 명시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벌점 체크
유사도 판정	× '통과 가능' 단정	✓ 추정치임을 병기
텍스트 밖 항목	× 아는 척 판정	✓ [한계 고지]에 명시
규정에 없는 사안	× 임의 기준 판정	✓ '위원회 해석 필요'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전송 전 참고용 — 부과 여부는 운영평가위 의결

· 유사도는 추정치 — 네이버 기계 측정과 다를 수 있다.

+ **알아두면** 수정 전·후 두 버전을 함께 넣으면 전후 비교 판정까지 받는다.

기준: 「네이버 뉴스 제휴 심사 및 운영 평가 규정」(2026.2.11 제정) · 2026년 8월 부과 예정

▶ **후속 명령** 재작성 / 특정 항목만 / 카테고리 지정

▶ 법적 리스크 점검은 @18 손배 체크

작업 원칙 규정·KB에 없는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 — 부과는 운영평가위 의결

@18 손배 체크 출고 전

이럴 때 사용 이 문장, 소송당하면 지는 건 아닐까 — 송고 직전의 불안.
감시 보도는 내보내야 하는데, 최대 5배 징벌배상이 무섭다.

입력

기사 초고(+취재 경위) — 취재 경위가 있으면 판정이 정밀해진다

송고 직전, 법적 리스크 점검

기사 초고 + 취재 경위

▼ 요건 대입

[종합 위험도] 중간 — 단정 표현·반론 미확보

개정 정보통신망법(2026.7.7 시행) — 최대 5배 배상 기준.

이런 것까지 점검합니다

✓ 문장별 지적과 수정안 ✓ 징벌배상 3요건 해당성 ✓ 면책 전망 — 공익성·상당성

출력

● [종합 위험도] — 높음·중간·낮음+근거

● 문장별 지적 — 원문·법리·수정안

● 3요건·면책 — 해당성과 전망

● 확인 질문 — 취재 경위 보완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손배 체크
허위 소지+반론 없음	X 언급 없이 통과	✓ '높음'+보완 취재 권고
공익 감시 보도	X 겁을 줘 위축	✓ 안전한 출고 방향 제시
법률 쟁점	X '위법이다' 단정	✓ '~소지' + 조문·판례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법률 자문이 아닌 사전 점검 — '높음'은 데스크·법무 검토

· 위험을 과장도 축소도 하지 않는다. 근거는 조문·판례만.

▶ 후속 명령 수정안 / 특정 문장 / 면책 검토

▶ 네이버 벌점 점검은 @17 벌점 체크

작업 원칙 보도를 막는 게 아니라, 공익 보도를 안전하게 내보낸다

@19 이미지 생성 시각 실행

이럴 때 사용 **시각 기획이 짠 명령어를, 이미지로 옮기다** 숫자가 들어진다.
보기 좋게 다듬고 싶은 유혹 — 그 순간 검증이 무효가 된다.

입력

시각 기획(@14) 명령어 — 그 외 입력은 @14 경유를 안내

확정된 명령어를 그대로

시각 기획 명령어(확정본)

▼ **그대로 렌더**

이미지 + 문구·수치 전수 대조 보고

인쇄기처럼 — 명령어의 한 글자도 바꾸지 않고 그린다.

이런 것까지 지킵니다

✓ 개서·요약·보강 없이 렌더 ✓ [대괄호] 빈칸은 값을 요청 ✓ 생성 후 문구·수치 전수 대조

출력

● **렌더 이미지** — 명령어 그대로 생성

● **검수 보고** — 문구·수치 대조

● **불일치 표기** — 항목별 표시

● **수정 제안** — 재생성·단일 변경

핵심 차이

입력	피할 처리	이미지 생성
확정된 명령어	X 보기 좋게 다듬음	✓ 한 글자도 안 바꿈
빈 [대괄호] 자리	X 그럴듯하게 채움	✓ 값을 요청
수치 반올림 유혹	X 보기 좋게 반올림	✓ 원문 수치 그대로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수정 여부는 기자가 정한다 — 자동 재시도로 비용 안 쓴다

· 명령어에 없는 것은 그리지 않는다.

▶ **후속 명령** 재생성 / 단일 변경 / 크기·품질

▶ **명령어 수정·재기획**은 @14 시각 기획

작업 원칙 명령어 불변이 전부다 — 시각물은 제목보다 오래 남는다

@20 자유 대화 전 과정

이럴 때 사용 **도구가 스무 개인데, 지금 이 질문은 어디에 물어야 하나.**
급히 사실 하나 확인하고 싶은데, 챗봇은 그럴듯한 거짓을 준다.

입력

무엇이든 질문 — 고정 형식·후속 메뉴 없음

지금 이 질문, 어디에 물을까

질문 이 통계 어디서 찾나 / 이 판결 요지는

▼ 검색·출처 확인

출처·시점과 함께 답 + 소관 작업은 제한 표시

기자에게 틀린 답은 오보의 재료 — 확인된 것만 단정한다.

기반 모델: GPT 5.6 Sol · 웹검색 연동

이런 것까지 지킵니다

✓ 최신 사실은 검색 후 출처 표기 ✓ 확인 불가면 '확인되지 않는다' ✓ 실존 인물 발언 창작 0

출력

● 맞는 크기 답 — 고정 형식 없음

● 최신 사실 — 출처·시점 동반

● 소관 작업 — 제한 표시 3요소

● 경로 안내 — 맞는 도구 지목

핵심 차이

상황	피할 처리	자유 대화
현직·최신 수치	X 자체 지식으로 단정	✓ 검색 후 출처·시점
실존 인물의 발언	X 그럴듯하게 창작	✓ 확인된 발언만
전담 도구 소관 작업	X 보증된 척 답만 줌	✓ 제한 표시하고 수행

기자 확인 사항 · 다음 행동

✎ 판단은 기자 — 법률·의료·재무 개별 판단은 전문가에게

· 확인 안 된 이름·날짜·수치·인용은 단정하지 않는다.

▶ 후속 명령 자유 대화 계속

▶ 완성 품질이 필요하면 안내된 전담 도구로

작업 원칙 품질 척도는 유창함이 아니라 정직함 — 확인된 것만 구분해 말한다

7. 결정은 기자가 합니다. 확인 안 된 것은 표시.

도구 스무 개에 공통으로 깔린 설계 — 알고 쓰면 결과가 달라집니다.

출처에 없는 이름·날짜·수치·인용은 쓰지 않고 [확인 필요]로 남깁니다.

결정은 기자가 합니다. 확인 안 된 것은 표시합니다.



<https://ainova.news>

기사나 자료 한 건으로 시작

문의 service@ainova.news

모델·지시문·서비스는 운영 정책에 따라 예고 없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 AI LINK

powered by 